

#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4호 [부제 제25843호] 주제 106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 사설

###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전당, 전군, 전민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파견관행을 위한 총공작전의 불길들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주체조선에서 령도하는 영웅의 승전포성이 또다시 울려 퍼지는 것같이 되었다.

보도원들과 같이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도하시는 속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단행된것은 주체의 핵강국건설에서 가장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특기할 대승리이다. 오늘날이 경이적인 사변으로 하여 병진적 기치를 높이신단로고 하여 출기차게 전진시켜온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비로소 실현되게 되었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의 단행성공소식에 절한 온 나라가 이렇듯 수없는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끓어오르고있다. 11월의 하늘가에 위대한 강국의 주인공이 심장이 뛰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한 11월 29일의 눈부신 기적에 회답하여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올해전 우승리의 총홍을 울리려는 천만군민의 앙양된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하다.

조선의 정치는 파하고도 절이며 빛나는 선진이다.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 불패의 사회주의대인 우리 조국평에서 일어나는 사변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그 무엇보다도 비할바없이 귀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파강한 공격적으로 반

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앞에서 세계가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는 때에 이룩된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참으로 커대대의 의의로운 사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우리 조국이 국가핵무력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음을 단언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서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특성과 기술적특성이 훨씬 우수한 무기체계이며 우리 조국 목표한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미래의 최후무도한 핵위협공포를 끝까지 물리쳐 줄 수 있는 최후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 위대한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불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배도하며 가장 야만적인 반공국책들을 감행해오던 미국이 이번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를 인정하고 핵무력완성을 위한 전진총공작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전체 평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를 인정하고 핵무력완성을 위한 전진총공작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 4. 혁명》, 7. 2. 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성공의 대승리는 다 우리 당의 주체적

자신들을 불이집면서 최후발약하고 있다.

지금 미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지를 쥐어보고려고 전능발발을 계속 불어대는 한편 극악무도한 경제봉쇄의 포위환을 약속스럽게 조이고있다. 현수력의 막대한 악랄한 압박은 우리의 힘이 그만큼 강하여 우리가 가는 사회주의길이 천만 촛대에 대한 명백한 믿음으로 된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패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적들의 군사적위협이나 제재는 우리의 자강력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미래와 그 추후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은 사회주의에서 후의 혼혈물들이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우리는 적들의 제재압박행동에 보다 무서운 철수를 내리면서 더욱 자력자강의 위업을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다시금 온 세계에 힘있게 면지하였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실현, 이것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장성대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승리의 찬양이며 최후의 전진총공작전인 이 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최후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이 위대한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불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배도하며 가장 야만적인 반공국책들을 감행해오던 미국이 이번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를 인정하고 핵무력완성을 위한 전진총공작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전체 평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를 인정하고 핵무력완성을 위한 전진총공작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 4. 혁명》, 7. 2. 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성공의 대승리는 다 우리 당의 주체적

###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파시한 특대사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실현소식에 온 나라가 끓는다

### 당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백승의 한길로 우주에 달은 강국의 기상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소식에 절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맞이한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대망기쁨이 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내 나라의 하늘가에 울려퍼져 메아리치고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경이적 승리는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제국주의의 완전정복을 선언한 명철의 최성이며 병진적 기치를 높이 쳐주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

해나가는 불패의 사회주의조국에 드리는 경축의 후보성이다.

주체조선의 지위를 세계무대에 우뚝 올려세운 민족사적인 특대사변을 또다시 맞이한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우리가 미국본토전역을 초대형중량급핵탄두로 타격할수 있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를 인정하고 핵무력완성을 위한 전진총공작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우리의 공화국의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래의 핵공공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도안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것이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보유하게 됨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배도하며 가장 야만적인 반공국책들을 감행해오던 미국이 이번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를 인정하고 핵무력완성을 위한 전진총공작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전체 평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군사적조치를 인정하고 핵무력완성을 위한 전진총공작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 4. 혁명》, 7. 2. 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성공의 대승리는 다 우리 당의 주체적

### 800만의 심장 용암마냥 끓는다

지구를 뒤로드는 민족사적대업에 절한 우리 수백만 청소년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커다란 흥분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소식에 절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맞이한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 4. 혁명》, 7. 2. 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성공의 대승리는 다 우리 당의 주체적

### 국방과학자들의 그 정신, 그 본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 4. 혁명》, 7. 2. 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성공의 대승리는 다 우리 당의 주체적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소식에 절하고 기쁨과 흥회에 넘쳐있다. -김종태전기기관차원합기소소에서-



#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

## 정론 만 세 만 세 만 세 !

인민의 환희는 하늘끝에 닿았다.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중서, 북극의 강국의 평야에 우뚝 올라선 강성한 인민의 기상이 강산에 차넘친다. 자연의 계절은 추위를 몰아내고 격정으로 일렁이는 인민의 기쁨과 웃음꽃을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주신 권면명령. 《시험발사 승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쓰라!

### 김정은 2017. 11. 28

위대한 조선의 선인!  
쓰라 쓰라 우리의 화성포병들이여,  
백전백승의 장철의 명장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그으신 친필명령서의 희곡 절을 따라 우리의 미려운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이 대기를 헤쳐가르며 기운차게 나뉘어 올랐다. 행성을 휘젓는 장쾌한 회성과 더불어 역사의 하늘가에 승리의 부지개를 또 한번 새기었다.

조선로동당의 정치적전과 전략적전과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은 최대정검고도 4 47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50km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 북극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안착되었다.

간동성과 명동성이 확고히 보장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체계는 100% 우리의 원형 기술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명실공히 조선로동당식 무기체계이며 이로써 우리 국가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탄도로켓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염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확고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인민은 말한다. 승리, 더 승리라고, 우리가 그쳐된 바라고바라던 국가력 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이 성취되고 그 무진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는 최후승리의 리정표가 확고히 마련되었다고.

전초기의 초명도, 주체철을 쏟아내는 황철의 율령공들,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농장들의 주인들도, 황금해의 어로선사들도 웃음웃치는 환희와 격정을 마음껏 리는한다.

《승리의 최일도 막 심장이 리질것만 같습디다. 우리 원수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싶습디다.》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배설이 굳어지습디다.》  
《저들이 아무리 다투든 해도 우리는 한참 가련한 류무림으로밖에 보지 않습디다.》  
《이제와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결정지을수 있는 위력한 보장을 가지고보니 미국이라는 땅이 초라하게 그지없습디다.》

만리대륙에 솟구쳐오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리지검은 곧 위대한 당의 명도파라민족을 헤치고 오늘날의 최정정예로역 세계 돌출출처는 인민의 집, 조선의 집이다.

11월 29일, 이날은 모진 난관과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어 국가력무력완성의 대업이 이룩된 민족적대경사의 날, 역사적인 날이다.

이 땅의 저명한 역사가들이여, 시인들이여, 5천년역사구의 이 자람, 이 공지를 뜻을 적서 기록하고 격조 높여 노래하라.

희웃는 바다바탕 실재하는 인민의 희열, 위대한 강국의 세월에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의 자부심을 싣고 이따미당에 드리는 축하의 꽃물결이 끊어지지 않어진다.

온갖 애국과 상상을 초월하며 세척된 솟구친 강위력한 주체란, 더크고 더 강대한 조선의 보증을 두고 온 세계가 놀라움과 경탄의 불도가니로 끓어오르진다. 이제 더는 조선의 위대한 힘을 감히 부정할수 없음을, 그 어떤 제재와 압살도 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전진속도, 전진불발의 힘을 당해낼수 없음을 어지없이 증명하는 세계사적사면에서 제국주의의 무리는 무서워지게 전멸한다.

오늘의 대승리는 조선의 전라적지위를 완전무결하게 담보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최선처럼 분출한 주체사면이다.

우리는 이를할수 없는 인민의 환희를 안고 그토록 강국을 갈망해온 지난날 5천년역사와 이어지리라. 길고 긴 5천년의 갈망은 누구도 수눌수 없고 전드릴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닌 강국의 모습이었다.

조선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고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이여, 2017년 11월의 장쾌한 승전포성을 가슴후련히 들이보시라. 그리고 삼가 감사의 끈을 드리시라, 5천년의 넘쳐흐를 실현해 주신 위대한 애국자, 질세의 영웅 김정일장군님을 우리러! 역사는 세계의 주축을 쥐고 시대 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가장 역세고 정교로운 나뭇잎 보게 되었다.

이 행성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주체 없는 대국들이 반을 치는 낡은 세계 질서에 종지부를 찍을 자주의 새로

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고 전보적 인류는 조선을 정의의 등대로 바라보며 자기 힘을 굳세게 다져나갈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제멋대로 놀아대는 세계에서 세력구도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대한 사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교로운 조치이라고 우리의 전라적지위를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전바라라고 공간을 가득 채우고있는 경이적인 현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려보면 볼수록 얼마나 우리 마음 강국의 공민인 궁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오르는 것인가.

조선의 진군을 악의에 찬 폭언으로 호일고 제제압살폭동에 온갖 발원을 다 쏟아부으며 발광하던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망상은 산산이 깨어져버렸다. 오늘날의 주체사면은 미제 거대상 조선의 핵을 잘못 짓고 몽유병자처럼 돌아댄다면 그의 최후를 이 땅의 저명한 역사가들이여, 시인들이여, 5천년역사구의 이 자람, 이 공지를 뜻을 적서 기록하고 격조 높여 노래하라.

사위주의강국의 빛나는 《별》이 거세차게 떠오른 조선의 하늘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관건히 지키는 영원한 지평이 되었고 그 지평에서 우리의 황금, 황금, 황금, 황금 해는 더욱더 푸르미지고 풍만한 열매들을 주렁지우리라.

역사의 벽을 팽팡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은 아무나 울림수 있는 가벼운 메아리가 아니다. 조선이 강국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슴후련히 열어놓은 11월의 역사적대업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결정체이다.

누구의 도움이나 거대한 세력으로 마련한것이라면 오늘날의 대승리를 알아보는 우리의 가슴이 이리도 뜨거운 격정에 차넘칠수 있으리.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대승리를 위해 초인간적 인의지로 이어가신 우리 원수님의 화신력, 그이따라 가는 길에 반드시 승리의 배풍이 가미온다는 역적불변의 신념을 안고 힘차게 내뿜어온 인민의 환호성을 다시금 새겨본다.

바라보고 위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 병도자는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명도자의 발걸음과 천만 이 신안같이 일떠선 단결의 힘이 있어야만 이룰수 있는 역사적대업이었다. 조선의 무기가 실인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이것은 단순히 첨단과학기술의 창조물로만 볼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과 기상을 안은 주체조선의 붉은 보검

이로 강국으로 전진하는 인민의 한 의의를 가지는 대륙간탄도로켓의 상징과 같다.

나라의 운명개혁과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륙간탄도로켓 개발을 바른 시일안에 편이어 단행하고 대승공한 조선의 잠재력과 비상한 속도는 세계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다.

2017년은 로케트사면의 레라고 부활만큼 거대한 날과 달의 현수이었다. 이해만큼 우리의 탄도로켓들이 땅위에 눈부신 싹과 하늘에 줄기만 비행음을 새기며 자판차게 나뉘어오른다는 일찌기 없었다. 한두달이 멀다하게 새로운 로케트화물을 창조되어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을 격랑마냥 살게하게 하였다.

로케트신화였다. 3월에는 2017년 로케트신화의 서막을 열어세끼는 우리 식의 대륙력발동기지상분출시공, 9월에는 대륙간탄도로켓강력용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 다 안아보기에도 가슴벅찬 승리가서 더 큰 승리로 한번의 실패도 겪지 않고 《로케트마라톤》을 달리고달려온 우리의 공적주요이다. 또 오늘날에는 더 높이 비약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이 용용한 재래를 드러냈고 그 속도를 불려 비상하고 하계에는 우리자신도 놀라웠다.

아직 세계가 알지 못한 눈부신 속도, 남들같은 힘수 없는 로케트개발의 케단들을 성큼성큼 뛰어넘어 역사에 특기할 조선의 로케트속도를 완성시킨 내 조국의 힘은 강대하다. 이것은 신화라고봐에는 말리 부를수 없는 조선속도,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선을 숨가르며 따라오는것 같은 최일이 가슴가 보는 우리의 가슴이 이리도 뜨거운 격정의 조건에서 비상한 힘을 기울여 최상의 성과를 창조한 불변의 신화이다.

위대한 애국자이시며 질세의 영웅이신 김정일장군 만세! 만세! 만안세!

환호성을 울리며 기쁨과 격정의 마음을 퍼지는 인민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고여오른다.

5천년의 민족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신 그이, 조선인민의 존엄을 최상의 정교로 울려세우신 질세의 위인을 우리러 인민은 뜨거운 감사의 노래를 삼가 드린다.

11월 28일 길은 밤 로케트기출출비현장에 도착하시어 먼저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5축자행발사대차를 보시며 발사대차를 흥장했다 없

이 잘 만들었다고, 도장도 미끈하게 잘하고 모든 요소를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작했다고 치하시면서 대차개발전후에 참가한 공장로동계급의 수고를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단연성공에 기쁨을 금지 못하시며 만복에 대안복이라고, 최근 국방과학부분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성과는 조선로동당이 선명한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역사의 온갖 풍속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그러도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던 차에 로동영상을 우러물수록 가슴이 후더워오른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파시던 국방과학부분을 과학자, 기술자, 모동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역사에 남을 뜻을 내는 기념사전을 찍으신 열회같은 그 사랑,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성공을 선언하시며 오늘날은 국가력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 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린다.

보통의 질심으로는 버릴수 없는 강철의 신념과 초인간적 의지로 온전히 마음속을 인민과 조국을 안고 온강도강행군기를 이어오신 우리 원수님입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띠안하며 《세상에 부럼없이》라하노래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의 순간이 아닌 오늘날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했어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곡, 총실한 실무자들이 필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라고 하신 신년사의 그 말씀,

지금에 와서 어이하여 우리 원수님 새해의 첫 기슈에서 그러도 절절히 불러는 명세를 다시시였는지 그 뜻이 사무쳐와 더더욱 가슴이 쫓아온다.

위대한 원신과 로고로 조국의 대지에 만복의 열매를 주렁지우는 거대한 번영과 맑고 푸른 하늘을 지켜 내시내들이 수놓아진 이해의 날과 달을,

누구나 다질수 있는 명약이 아니었다. 누구나 마음먹었다고 하여 갈수 있는 그런 순한한 로정이 아니었다. 이 땅의 신과 불, 한그루 나무와 하나의 조약돌마저도 그러도 뜨겁게 안아보는 불세대의 애국자, 오직

식의 모습에 미소지으며 남몰래 지성을 바쳐가는 어머미처럼 온 나라 선민사식의 어머니가 되서 우리의 삶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해 깊은 밤, 이운새벽, 날과 밤을 헌신으로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이 땅이 그대로 헌신비가 되고 축원의 꽃바다가 되어 가장 숭엄한 경의를 삼가 드린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이 또 한번 세계를 돌았다.

인류역사, 적들이 《미국의 특급 기념일전야에 시험발사를 강행하여 세계최강국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조선》이라고 아우성치던 그 7월로 부터 불과 수개월만에 약마의 제국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강력타격수단을 마련한 11월 29일 열복로케트공명발전의 새 역사를 결연 《3. 1 혁명》으로부터 《7. 4 혁명》과 7. 28의 거적적승리, 대륙간탄도로켓강력용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성공 등 국가력무력완성과 로케트강국건설을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사색과 로고, 피와 땀, 열과 정을 그 어디에 비길수 있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뜨거워지는 마음속에 그날을 영원의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던 《7. 4 혁명》, 우리의 첫 대륙간탄도로켓을 개발완성해나간 그대 우리 원수님 그 위업 전만한 전과정에 화신의 전두원이 되셨다.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위구심이 앞서 건장되어있는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꼭 성공한다고, 꼭 올라간다고 고무와 심신을 주신 위대한 명장.

그렇게 대지를 막치고 날아오른 우리의 첫 대륙간탄도로켓가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을 때에는 완전대성공이라고 감지높이 선언하시며 그이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켓을 가진 날이다. ... 대륙간탄도로켓을 가진 날! 참으로 새길수록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무름이다.

조국수호의 억년보장을 위해 위업 전만한 그 로케트강행군기에 걸단고 나서신 우리의 어머니.

자신의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로 이어지는 길이 인민의 《세상에 부럼없이》라하노래, 웃음소리를 지키고 더욱 높이 울려리치게 하는 것이었기에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주체없이 화신원리김을 이어가신것 아니었던가. 어찌 그이께서 새기신 불멸의 로고와 원신의 자욱 지 하늘에 새겨진 자람한 승리의 비행운안이라.

우리의 황용한 전속물들과 우리의 가방과 우리의 싹, 지역경쟁의 무희철마 《원리마-804》 초트라프와 새형의 화물자동차들... 그 많고많은 말로미시대의 새물들이 병진의 기차마와 부강의 대로를 열어나갔다.

행복의 요람에 잠겨 단결에 든 자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은 인민의 웃음꽃이 더 활짝 피어내게 하기 위한 인민사랑의 보검이거니, 눈이 부시도록 환희롭고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모은것 같은 아름다운 단풍의 불꽃이 무한한 새 힘과 희망을 싣고 퍼져온다.

피와 땀으로써 국가력무력완성의 끈기를 달려온 우리 인민의 손에 기쁨의 열매들이 오늘보다 더 가득히 차려질 맑은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시어 우리는 언제나 이길다. 그이만을 믿고 따르고 만들어나가는 길에 오늘과 같은 영광과 승리는 끝없이 펼쳐질것이며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리라.

우리말에 전진만전의 시련과 난관이 지렁이도 원수들의 발악적책동이 극도에 이룬다고 하라.

휘황한 번영의 주로가 펼쳐지고 위대한 자력경쟁의 정신으로 단결약한 인민의 철의 데오가 있기에 초고속으로 질풍노도처럼 나가는 조선의 전진을 막을자는 이 행성이 없다.

조선아, 애국에 불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불러보는 우리 조국 강대한 조선아!

그대의 아들딸들은 역사의 온양도 전라 시련을 맞아싸고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

위대한 주체조선을 세계에 우리러 보라!

위대한 애국자, 질세의 영웅 김정일장군 만세! 만세! 만안세!

행복의 요람에 잠겨 단결에 든 자



- 평양역앞에서 -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



- 철도성에서 -



- 대진군 운동원농장에서 - 분사가자 역을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당중앙따라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조선 제일 강대하다

이 땅에 또 하나의 특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형의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세형의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세형의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했다고 공적으로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역사의 그 시각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고래친 무한한 환희와 격정의 세계를 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리다.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겁쟁이치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전로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입니다.

지구를 박차고 상공을 날아오른 우리의 대륙간판도르케트에는 이 나라 인민의 사무친 속진이 있고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특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형의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했다고 공적으로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역사의 그 시각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고래친 무한한 환희와 격정의 세계를 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리다.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겁쟁이치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전로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입니다.

지구를 박차고 상공을 날아오른 우리의 대륙간판도르케트에는 이 나라 인민의 사무친 속진이 있고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특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형의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나하나 붙들어 이끌어서 유복자 무기체계라고, 생애의 마지막시기 국가국방공방능력증강의 강화를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원성공의 오해를 보시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로다 뜨거운애로 찾아 보이시던 우리 원수님, 그날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천만군민이 가슴깊이 새겨안은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것은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라 한행성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병전의 기지를 높이 드시고 승리의 영광을 즐겨주시게 하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정녕 어찌 잊을수 있나, 원수님의 핵전쟁위협소동이 크도매 달하고 조국전에 상상할수 없는 시련이 막이될 때마다 우리 원수님께서 마음의 신봉을 더욱 굳이서 핵무력강화의 힘찬한 길을 억척스레 세치신 그 자욱자욱을.

지난 2월 서상대지상중거리미사일을 쏘아올린 《북극성-2》형 미사일을 쏘아올린 원수님께서 계시여 세상은 들었던 《3.18 혁명》과 《7.4 혁명》의 폐습이 이룩되고 7.28의 기적적승리를 보노라 그대 깨닫게 되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서해위협발사장에서 나오셔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륙탄도미사일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비밀검사와 실험을 지도하시던 그날을 잊을수 없다. 사공이 확정된 후 발동기연구제작에 기여한 비대한 전사들을 향하여 엄숙고민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무르도 대견하시여 자신의 등에 전사를 업어주시던 위대한 태양의 언니를 우리는 더 나그라 걱정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적

사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그 믿음, 그 손길이 있어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역사에 특기할 위대한 기적을 창조해낼수 있었다. 사람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사하십시오!》를 적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님께서 계시여 세상은 들었던 《3.18 혁명》과 《7.4 혁명》의 폐습이 이룩되고 7.28의 기적적승리를 보노라 그대 깨닫게 되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서해위협발사장에서 나오셔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륙탄도미사일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비밀검사와 실험을 지도하시던 그날을 잊을수 없다. 사공이 확정된 후 발동기연구제작에 기여한 비대한 전사들을 향하여 엄숙고민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무르도 대견하시여 자신의 등에 전사를 업어주시던 위대한 태양의 언니를 우리는 더 나그라 걱정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적

정령 그날의 가슴뜨거운 화곡은 원수님의 귀익은 체제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권력강화의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이룩하고있는가를 보여준 불멸의 화곡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열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해를 주몸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려라 조선의 기상과 명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한 크나큰 격정으로 감동할 모르는 동진군민의 혈통말뚝에 애국의 뜨거운 숨결이 높여졌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적힌 신임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비상히 앙양된 열의로 총열군인에 펼쳐나 올래에 제화한 가을같이파래를 생파에서도 경추하였다. 그리고 거름생성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며 계속하여 기계화추진해나가고있다. 흙보산비료생산을 위한 원료확보진추도 산추협동농장이 부글부글 끓고있을 때 산추협동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애국열정에 버말날려 비탈막이까지의 내내를 비롯한 모란지배물이 가득가득 마련되고있다. 용암포동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의 실적도 비가간을 다듬어 뛰어오르는 속에 공격적 다음해 농사치미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되고있다.

역사의 온갖 승과에서도 크며없는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했다고 공적으로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아름다운 이 땅에 다시는 그 누구도 침략의 발을 들여놓을수 없으리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열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해를 주몸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려라 조선의 기상과 명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한 크나큰 격정으로 감동할 모르는 동진군민의 혈통말뚝에 애국의 뜨거운 숨결이 높여졌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적힌 신임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비상히 앙양된 열의로 총열군인에 펼쳐나 올래에 제화한 가을같이파래를 생파에서도 경추하였다. 그리고 거름생성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며 계속하여 기계화추진해나가고있다. 흙보산비료생산을 위한 원료확보진추도 산추협동농장이 부글부글 끓고있을 때 산추협동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애국열정에 버말날려 비탈막이까지의 내내를 비롯한 모란지배물이 가득가득 마련되고있다. 용암포동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의 실적도 비가간을 다듬어 뛰어오르는 속에 공격적 다음해 농사치미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되고있다.

역사의 온갖 승과에서도 크며없는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열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해를 주몸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려라 조선의 기상과 명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한 크나큰 격정으로 감동할 모르는 동진군민의 혈통말뚝에 애국의 뜨거운 숨결이 높여졌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적힌 신임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비상히 앙양된 열의로 총열군인에 펼쳐나 올래에 제화한 가을같이파래를 생파에서도 경추하였다. 그리고 거름생성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며 계속하여 기계화추진해나가고있다. 흙보산비료생산을 위한 원료확보진추도 산추협동농장이 부글부글 끓고있을 때 산추협동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애국열정에 버말날려 비탈막이까지의 내내를 비롯한 모란지배물이 가득가득 마련되고있다. 용암포동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의 실적도 비가간을 다듬어 뛰어오르는 속에 공격적 다음해 농사치미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되고있다.

역사의 온갖 승과에서도 크며없는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열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해를 주몸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려라 조선의 기상과 명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실현한 크나큰 격정으로 감동할 모르는 동진군민의 혈통말뚝에 애국의 뜨거운 숨결이 높여졌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적힌 신임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비상히 앙양된 열의로 총열군인에 펼쳐나 올래에 제화한 가을같이파래를 생파에서도 경추하였다. 그리고 거름생성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며 계속하여 기계화추진해나가고있다. 흙보산비료생산을 위한 원료확보진추도 산추협동농장이 부글부글 끓고있을 때 산추협동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애국열정에 버말날려 비탈막이까지의 내내를 비롯한 모란지배물이 가득가득 마련되고있다. 용암포동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들에서의 실적도 비가간을 다듬어 뛰어오르는 속에 공격적 다음해 농사치미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되고있다.

역사의 온갖 승과에서도 크며없는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이는 조선이 올린 경의의 피서이고 천만군민이 마친 승리의 쾌감이었습니다.



11월 29일 평양역 앞에서. 본사기자 신웅혁 찍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는 평양에서 그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핵무산현의 장군입니다.」

민족의 존영, 인민의 환희가 하늘같이 높았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을 실현!

29일 낮 12시, 세형의 대륙간판도르케트 시험발사 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자 수도 평양의 곳곳에서는 삼시에 환호가 퍼져나갔다. 시로시로 손을 잡고 격정을 터놓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지식들의 모습이 어려웠다. 민족사적대업의 성취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지식들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 상상의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출납과 말을 이어가는 어머니들이기에, 사랑하는 지식들에게 행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는 평양에서 그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핵무산현의 장군입니다.」

민족의 존영, 인민의 환희가 하늘같이 높았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을 실현!

29일 낮 12시, 세형의 대륙간판도르케트 시험발사 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자 수도 평양의 곳곳에서는 삼시에 환호가 퍼져나갔다. 시로시로 손을 잡고 격정을 터놓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지식들의 모습이 어려웠다. 민족사적대업의 성취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지식들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 상상의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출납과 말을 이어가는 어머니들이기에, 사랑하는 지식들에게 행부

한 날날 잊기를 소원한 어머니들이기에 민족사적대업을 달라는 그 손길의 모습을 떠올렸으며, 그리고 확신했으리라.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언제까지나 세상이 부를지어라

이 나라 어머니들의 당부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자 수도 평양의 곳곳에서는 삼시에 환호가 퍼져나갔다. 시로시로 손을 잡고 격정을 터놓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지식들의 모습이 어려웠다. 민족사적대업의 성취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지식들의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 상상의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출납과 말을 이어가는 어머니들이기에, 사랑하는 지식들에게 행부

11월 29일 낮 12시 평양역 앞에서 축하의 인사사

조선인민군 근관 정병준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이 위대한 승리에 조국의 하늘까지 날부신 비를 울음 세웠을 《화성-15》형 대륙간판도르케트를 그려보노라 나 기쁘고 그칠줄없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계일동지, 제일전우가 되어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을 실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열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해를 주몸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려라 조선의 기상과 명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세계를 굽어보며 더 높이, 더 빨리 교육위원회 일군들과 정부원들

그는 국방부원의 일군들과 과학자, 로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기쁨을 본받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로중 중시하시는 교육사적대업에 혁명적원한 일으켜 세우기 위한뜻으로 우리 나라를 교육강국으로 빛내여나가는 데서 기수의 역할을 다할것을 결의하였다.

리관호 보통교육부 부장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께서 지시하신 무비의 담력과 배정를 다스림 심정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는 우리 조국이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섰다는 긍지로 가슴이 부풀어오른다고 하면서 격동된 자기의 심정을 열정적 넘쳐뜨리고있다. 계속하여 그는 우리 조국의 존영과 위업을 파괴하지가도록 본받되 담담할수 있게 하자면 인제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간다고 하면서 세계 교육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교육부원 일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불타는 열정을 다지였다.



평북총합대학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의 역사적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을 실현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판도르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총열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열기하여 해를 주몸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려라 조선의 기상과 명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대경사의 날

만경대구역 철물1동에 살고 있는 박형갑은이는 시기는 한정된시간에서 군사부대를 한데 온통이요 하면서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라적권안에 완전히 포함되었으니 얼마나 흥쾌한 일인가. 이제라도 전우들과 함께 자기가 부부하던 조소로 달려가고있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우리 혁무력의 위력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았다. 경제전결과 핵무력전선의 병전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열과정을, 온몸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 그이께서 계시어 오늘날의 민족사적대업에서 마친것이 아닌가.

대경사의 날

만경대구역 철물1동에 살고 있는 박형갑은이는 시기는 한정된시간에서 군사부대를 한데 온통이요 하면서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라적권안에 완전히 포함되었으니 얼마나 흥쾌한 일인가. 이제라도 전우들과 함께 자기가 부부하던 조소로 달려가고있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우리 혁무력의 위력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았다. 경제전결과 핵무력전선의 병전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열과정을, 온몸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 그이께서 계시어 오늘날의 민족사적대업에서 마친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신의 이력사적사건을 보시었다라면 열이나 기꺼워하셨겠는가고 하면서 자기의 뜨거운 심정을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어 우리는 만드신것이다 신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받은 혁명적투쟁에 모든것을 바쳐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책임부담 남달리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경제체제와 괴담살상 핵속속에서도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이 이룩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의 고귀한결심이 라고 하면서 오신의 환희를 실재있게 간직하고 당의 교육정책관철에서 앞장서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이들의 불같은 심장의 드로는 노래도 못 부른 채의 체제위원을 높여 묘시여 존영과 위명을 만방에 떨치는 내 나라, 내 조국명우에 기여한 젊은이들의 숭고한 뜻대로 교육강국, 인제강국을 일떠세울 교육위원회 일군들과 정부원들의 드림없는 신심의 분출이었다.



#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민족사적대경사

##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

【평양 1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반세기만에 걸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며 폭풍쳐 나가는 주제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담아내고 새해의 대륙간탄도로켓의 장엄한 최성이 온 세계에 울려 퍼졌다.

29일 낮 12시 새로 개발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발사를 전하는 소식에 철한 백두산기슭의 하늘에 첫 등재로부터 천리방선의 초소들

과 중산의 동음 세차에 울리는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 중산의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넘어졌다.

전체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감정의 타력과 배양, 불면분류의 애국헌신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미제가 저들의 본토전역이 최정예강군의 섬멸적이며 무자비한 핵타격탄에 들어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망각하고 끝끝없이 땅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쏟아내던 우리의 핵전쟁무장력

은 위대한 병정의 기치높이 다지고다저는 핵전쟁무력으로 침략과 약의 소굴 미국방위력들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야말것이다.

리비우 보복강성발사공작 지대인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변제도따라 폭풍쳐 나가는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아보려고 미쳐달리는 미국놈들에게 결정적 강타를 안긴 오늘에 배가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무기체계가 전술기술적혁신과 기술특성이 우월하며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성단계에 도달한 위대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회주의강대국의 공민된



- 당창건기념탑광장에서 -



- 평양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에서 -



- 시성구역 장경2동 한평통풍무의 가정에서 -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로 끓어넘어지고있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을 실현케 하는 새해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의 대성공소식이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공장과 농촌, 조부와 마을들에서 격정의 환호를 울리는 인민들의 모습은 나의 심장을 세차게 흥분시키고 있다.

과연 내 조국의 환희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정치에 온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세계는 무엇을 보고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제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확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시다.》

환희의 석양이 비치는 언덕에서 또다시 민족사적대업에 접하고보니 감회도 깊고 격정도 크다.

정성 격동의 2017년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환희가 그 얼마나 많았는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켓의 장엄한 폭음은 감히 우리 국가의 《완결과피》라는 미치광이나발을 붙여대며 핵전쟁도발소동에 광분하고있는 남강도 미제에게 내리는 단호한 징벌이며 무자비한 철추이다.

명실상부한 주제의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외면하고 오만하게 날뛰는 이리서고 비현한 미국놈들을 초저기 탄핵성 오호의 대승리는 우리 인민군정병들의 가슴마다에 무적의 힘과 용기를 태태해주고있다.

미제가 저들의 본토전역이 최정예강군의 섬멸적이며 무자비한 핵타격탄에 들어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망각하고 끝끝없이 땅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쏟아내던 우리의 핵전쟁무장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평양지하철도 전승역이다. 시계는 낮 12시를 가까이하고있다.

지하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벌써 몇번째 그렇지않고대기만 하였다.

공중대포가 있다는 소리에 떨한 그들이였다.

지하역통차안에서도 중대포도 볼수 있었지만 한참이라도 총소리들었다면 같이 그들은 오메전부터 역에 설치된 방충에 귀를 장구고 그 자리에 서있었다.

드디어 낮 12시. 새해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대성공을 알리는 방충용의 함성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대륙간탄도로켓이

## 수필 | 조선의 환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의 장엄한 불꽃은 명실공히 개발성공을 이미 확고히 견인한 주제조선의 로켓강국위업의 새로운 탄생을 안아오고 군사강국, 우주강국의 명마루에 높이 올라선 우리 조국의 위대한 새 세상에 피사하는 역사적인 사변이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그 시기에 이렇게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라는 세계가 꿈 크게 펼쳤었다.

정녕 로켓강국위업에서 대 비약을 이룩한 역사적인 《3.18혁명》은 이 땅위에 얼마나 큰 환희를 만들어 내어왔는가.

과연 이례는 어떻게 막을 내릴것인가.

정의와 폭제의 저주국의 대결 속에서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세계의 수억만민우가 이 불을알에서 자기나눔의 답을 찾

아날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뜻깊은 날이다.

새해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알리는 우렁찬 환희의 화답인양 온 나라를 뒤덮는 환희의 메아리는 분회세의 천송령장을 보시어 최후의 승리가 조선인민이라는것에 대한 확신이다.

내 조국의 11월의 환희는 이렇게 태지고있다.

민족의 가슴 만방에 편지처럼 만 리상공에 솟아오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장엄한 비행은 이렇게 나의 심장을 두드러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의 시험발사 성공!

진승역은 기쁨과 환희로 끓어 넘었다.

저저마다 주먹을 높이 쳐들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 소리높이 외쳤다.

《난세, 우리가 이겼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자의 기쁨과 자부심이 한껏 어렁였다.

손자의 손목을 잡고 방충선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듣고있던 노인도, 걸학을 다녀오던 자립도 모두 숨을 죽이고 서있던 나이든 소년단원들도 기쁨을 금치 못했다.

여기저기서 탄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또다시 이렇게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신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음은 참으로 기쁘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에게 주제조선의 부대를 보였으니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핵무력이 무서워 떨며 떠는 미제의 가련한 불꽃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아요.》

...  
 누구나 최후승리의 그날이 눈앞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로씨야국가회의 정당연합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는 29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국가회의 로조친선친단 단장인 까즈페르 파이샤예프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부 단장인 카즈페르 파이샤예프의 정당연합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리수용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현명함도 높이 평가하고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만민이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적질

## 전민총동력전에 더 큰 박차를 가해주는 문학작품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각지 작가들이 문학작품들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꽃이 세계를 향하여 번져나가고 조국건설을 위한 혁명적이며 투쟁적인 창작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드높은 열의의 열매가 최근 한달동안에만도 250여편의 작품들이 창작되고있다.

시 《10월과 땅》, 《그이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움의 파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의 위훈을 힘있게 찬양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 파키스탄 대사관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5주년을 즈음하여 주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파란한 군사사상과 주제전법, 병활한 전략기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혈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영웅조선의 빛나는 전승선화가 창조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관동들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싸이어드 짜사드 하이데르시 대외대사는 감동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인민은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고 했다.

대사관성원들은 또한 주제사상과 백혈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영웅조선의 빛나는 전승선화가 창조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관동들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분장 리위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영철동지, 위무성 부장 최희철동지 등 관계부관 임원들이 초대되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로씨야 국가회의 정당연합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국가회의 정당연합대표단을 위하여 29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국가회의 로조친선친단 단장인 까즈페르 파이샤예프 로씨야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부 단장인 카즈페르 파이샤예프의 정당연합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리수용동지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현명함도 높이 평가하고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만민이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적질

## 제16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 귀국

제16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귀국하였다.

전날 시가 여러 국제, 국내경기들에서 우수한 우리 나라의 김태경선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메달을 쥐고 우승의 금메달을 수여받았으며 란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렸다.

한편 조은옥선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하였다.

제15차 아시아마라손선수권대회에 이어 또다시 선수권을 쟁취한 김태경선수의 승전소식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정전관행을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구불타에서 새로운 인양을 일으켜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29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체육사 김일국동지, 마라손회

## 라오스 대사관 연회 마련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사관이 29일 대동강외교관공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태동지, 대외문화체육부 장관 김경숙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영철동지, 위무성 부장 최희철동지 등 관계부관 임원들이 초대되었다.

대사관 성원들은 또한 주제사상과 백혈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영웅조선의 빛나는 전승선화가 창조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관동들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분장 리위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영철동지, 위무성 부장 최희철동지 등 관계부관 임원들이 초대되었다.

대사관 성원들은 또한 주제사상과 백혈불굴의 투쟁정신에 의하여 영웅조선의 빛나는 전승선화가 창조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관동들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분장 리위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영철동지, 위무성 부장 최희철동지 등 관계부관 임원들이 초대되었다.

## 뽀끼에에 갔던 최고 인민회의대표단 귀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조국 통일연구원 원장 리홍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뽀끼에서 진행된 아시아의회의 제10차총회에 참가하고 28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영예의 금메달을 펼친 김태경선수



# 영용한 붉은 매들이 있어 내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푸르리라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결사대인 공화국의 영용한 전투 비행사들, 새해의 대륙간도로 케트시형발사의 대성공 소식은 항공철을 맞은 그들에게 환희를 더해주고 있다.

최고사령관의 비행대! 얼마나 존엄높고 영예로운 부대인가.

《공중우세》를 쟁내면 미래의 거대한 코대를 보기 좋게 뛰

어버린 전회의 용사들과 미래의 대형전비행기 KC-121》을 공중에서 박살내면 조국의 장한 아들들을 얼싸안으며 김일성장군님 비행사들, 김일성장군님 비행사들이라고 격정을 금치 못하던 그대처럼 얼마나 존엄높고 영예로운 부대인가.

《공중우세》를 쟁내면 미래의 거대한 코대를 보기 좋게 뛰

가장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끊임없이 충실한 백전백승의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최고사령관의 비행대,

함으로 고귀한 부대이다. 그것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포연서린 결전장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조선의 비행사들, 장장 수십년간 조국의 평공을 믿음직하게 지켜온 우리의 군인들이 아름다운 평흔을 조국의 하늘에 바쳐 얻은 가장 소중한 생애이다.

우리의 붉은 매들이여, 긍지 높게 추억하라.

온 한때 무대위와 추위속에서 정신속력으로 긴장한 전투군무를 수행하면서 평평방위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때 비행사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만났을 비행복을 그대로 입고 활주로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때 비행사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솟구쳐올랐던가.

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비행사!

이 하나의 신념으로 고동된 심장의 박동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것만 같다.

영웅적조선인민군비행대는 천출명장 김정은장군의 비행사들이라는 존엄과 위엄 앞에 걸립하여 원수를 쓰는 사죄주의 원칙의 평공을 단 1mm도 넘볼 수 없었다.

최고사령관의 비행대!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가.

주제혁명위원의 새시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와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는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의 비행대라는 그 말이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말처럼 친근하게 간직되였다.

비행사들을 자신처럼 믿고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신에서는 늘 비행사들과 함께 조국의 하늘을 날으는 심정이라고 하면서 비행사들을 찾아 현시사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데는 최고명도자 동지, 우리 비행사들을 찾아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시사람의 그 길은 믿어주어서 우리의 항공군을 살림해주시고 한평생을 다 바쳐 우리 혁명무력의 위대한 군종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안고 달려온 길이었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전투비행사들속에 계시었고 서거하시기 전날 밤에도 비행사들의 경양건축과 관련한 은근같은 말씀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안고 달려온 길이었다.

천여비이심정으로 참성과 세면장, 풍창고, 식당, 취사장, 온실, 비석세배장도 일일이 돌아다니며 비행사들의 생활을 따돌아 보살펴주실 때 우리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 얼마나 뜨거이 우리였던가.

태양열광발전기에서 나오는 세면장의 물은도도 가는데보시어 한겨울에도 머문들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자신의 마음이 혼란해진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그의 환하신 미소.

3. 8극제부내결을 맞으며 화강봉과 식료품을 마련해가시

고왔는데 비행사안들한테는 3. 8절을 축하하는 최고사령관의 인사와 함께 전달해달라고 하시던 지어깊은실 용성이며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음식감들을 보시면서는 당에서 금과예기처럼 믿는 비행사들의 식사보장을 맡은 취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르시던 절절한 당부는 정녕 이 세상 그 어떤 불기름에도 타지 않을 영원한 남게를 달아준 위대한 사랑이었다.

용맹스러운 우리의 처녀비행사들, 그들의 가슴속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는가.

내성전투비행사들의 단속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용라고, 하늘의 바위라고, 견산에서 처음으로 내성초속을 전투기비행사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말씀하시던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

조선전쟁의 기개를 과시한 영웅조선의 호녀, 훈련영웅들이라고 칭하심은 그 말씀에 붙어 남치는데 그들을 접으며 보내어 오날의 훈련성과를 자랑하게 하라고, 항공군사령관과 정치위원이 함께 찾아온 훌륭한 평을 붙어 이들의 부모를더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시던 말씀은 전쟁 하늘에도 비기지 못한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안겨 주었다.

어찌 그뿐이랴.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수호의 항로를 함께

날고있는 부부비행사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한 한 애국자라는 최고의 믿음과 안겨 주시며 특사적인 대외활동에서 몹시 부비행사의 아가이름까지 이어주시는 때 우리 비행사들이 터지던 격정은 정녕 하늘에 닿았다.

세상에 그 어느 부모의 마음을 위하여 이런 고결한 사랑을 바칠 수 있랴.

이 땅의 천만부모도 마를수 없는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의 위대한 어머니사랑이 언제나 우리 비행사들을 따돌아 보살피주기에 영용한 붉은 매들속에서는 《하늘의 매를 우리 가 되리라》와 같은 투철한 신념의 합성이 붙어있어 버티는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의 승혜에서 지리나 무의의 용사들이 우리 비행사들이다.

우리의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만은 따르며 조국수호의 하늘길을 영예롭게 날고있는 사랑하는 비행사들이여!

그대들의 전투기록장에 보란 칸 부부의 하루하루를 긍지높이 새겨가라.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비행사가 된 한영은 영광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라.

영용한 우리의 붉은 매, 최고사령관의 비행대가 있어 내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푸르고 푸르리라.

본사기자 김 경 일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결사대인 공화국의 영용한 전투 비행사들, 새해의 대륙간도로 케트시형발사의 대성공 소식은 항공철을 맞은 그들에게 환희를 더해주고 있다.》

《공중우세》를 쟁내면 미래의 거대한 코대를 보기 좋게 뛰

가장 열렬한 전투적인사를 보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끊임없이 충실한 백전백승의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최고사령관의 비행대,

함으로 고귀한 부대이다. 그것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포연서린 결전장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조선의 비행사들, 장장 수십년간 조국의 평공을 믿음직하게 지켜온 우리의 군인들이 아름다운 평흔을 조국의 하늘에 바쳐 얻은 가장 소중한 생애이다.

우리의 붉은 매들이여, 긍지 높게 추억하라.

온 한때 무대위와 추위속에서 정신속력으로 긴장한 전투군무를 수행하면서 평평방위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때 비행사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만났을 비행복을 그대로 입고 활주로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때 비행사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솟구쳐올랐던가.

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비행사!

이 하나의 신념으로 고동된 심장의 박동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것만 같다.

영웅적조선인민군비행대는 천출명장 김정은장군의 비행사들이라는 존엄과 위엄 앞에 걸립하여 원수를 쓰는 사죄주의 원칙의 평공을 단 1mm도 넘볼 수 없었다.

최고사령관의 비행대!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가.

주제혁명위원의 새시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와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는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의 비행대라는 그 말이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말처럼 친근하게 간직되였다.

비행사들을 자신처럼 믿고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신에서는 늘 비행사들과 함께 조국의 하늘을 날으는 심정이라고 하면서 비행사들을 찾아 현시사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데는 최고명도자 동지, 우리 비행사들을 찾아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시사람의 그 길은 믿어주어서 우리의 항공군을 살림해주시고 한평생을 다 바쳐 우리 혁명무력의 위대한 군종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안고 달려온 길이었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전투비행사들속에 계시었고 서거하시기 전날 밤에도 비행사들의 경양건축과 관련한 은근같은 말씀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안고 달려온 길이었다.

천여비이심정으로 참성과 세면장, 풍창고, 식당, 취사장, 온실, 비석세배장도 일일이 돌아다니며 비행사들의 생활을 따돌아 보살펴주실 때 우리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 얼마나 뜨거이 우리였던가.

태양열광발전기에서 나오는 세면장의 물은도도 가는데보시어 한겨울에도 머문들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자신의 마음이 혼란해진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그의 환하신 미소.

3. 8극제부내결을 맞으며 화강봉과 식료품을 마련해가시

고왔는데 비행사안들한테는 3. 8절을 축하하는 최고사령관의 인사와 함께 전달해달라고 하시던 지어깊은실 용성이며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음식감들을 보시면서는 당에서 금과예기처럼 믿는 비행사들의 식사보장을 맡은 취사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르시던 절절한 당부는 정녕 이 세상 그 어떤 불기름에도 타지 않을 영원한 남게를 달아준 위대한 사랑이었다.

용맹스러운 우리의 처녀비행사들, 그들의 가슴속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는가.

내성전투비행사들의 단속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정말 용라고, 하늘의 바위라고, 견산에서 처음으로 내성초속을 전투기비행사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말씀하시던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

조선전쟁의 기개를 과시한 영웅조선의 호녀, 훈련영웅들이라고 칭하심은 그 말씀에 붙어 남치는데 그들을 접으며 보내어 오날의 훈련성과를 자랑하게 하라고, 항공군사령관과 정치위원이 함께 찾아온 훌륭한 평을 붙어 이들의 부모를더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시던 말씀은 전쟁 하늘에도 비기지 못한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안겨 주었다.

어찌 그뿐이랴.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수호의 항로를 함께

날고있는 부부비행사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한 한 애국자라는 최고의 믿음과 안겨 주시며 특사적인 대외활동에서 몹시 부비행사의 아가이름까지 이어주시는 때 우리 비행사들이 터지던 격정은 정녕 하늘에 닿았다.

세상에 그 어느 부모의 마음을 위하여 이런 고결한 사랑을 바칠 수 있랴.

이 땅의 천만부모도 마를수 없는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의 위대한 어머니사랑이 언제나 우리 비행사들을 따돌아 보살피주기에 영용한 붉은 매들속에서는 《하늘의 매를 우리 가 되리라》와 같은 투철한 신념의 합성이 붙어있어 버티는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의 승혜에서 지리나 무의의 용사들이 우리 비행사들이다.

우리의 영웅에 속하는 최고명도자 동지만은 따르며 조국수호의 하늘길을 영예롭게 날고있는 사랑하는 비행사들이여!

그대들의 전투기록장에 보란 칸 부부의 하루하루를 긍지높이 새겨가라.

위대한 김정은장군의 비행사가 된 한영은 영광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라.

영용한 우리의 붉은 매, 최고사령관의 비행대가 있어 내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푸르고 푸르리라.

본사기자 김 경 일

## 화력발전소 건설에 제정적이며 빠른 대대적전투비행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 탄전이 끊는다, 석탄산이 높아간다

북창지구 청년탄광 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최첨단 보장을 위한 증산투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탄광기업소아래 탄광들은 물론 탄광기계설비 및 부속품 생산을 맡은 보장단위에 이르러까지 새해의 대륙간도로 케트 《화성-15》형시형발사의 대성공소식에 걸고도 불도가나날 더욱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업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최고사령관은 그대로 전력생산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탄광기업소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최첨단생산지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군들은 이미 마련된 생산장비와 내부비밀적극 람구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있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경험에 토대하여 생산단위별로 나가는 원동생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집단 불꽃을 불어넣는 사업을 방법있게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작전에 따라 매일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주라격대상들이 뚜렷하게 정해졌다. 고속도굴진성과를 확대하

### 북창지구 청년탄광 합기업소에서

공들은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정신을 단강약하고 굴진속도를 보름에보다 1. 3배로 높이며 생산인량을 힘차게 얻어나가고 있다.

탄광기업소아래 년간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기업소아래 최첨단보장은 큰 몫을 맡고있는 청년탄광 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가 높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요새를 따라갈사기, 마르페우기운동, 정형교환운동의 불꽃을 쏘아붙이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 있다.

탄광기업소아래 최첨단보장은 큰 몫을 맡고있는 청년탄광 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가 높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요새를 따라갈사기, 마르페우기운동, 정형교환운동의 불꽃을 쏘아붙이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 있다.

### 실적 평가와 증산예비

특장청년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의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국가계획을 완수하는 데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국가계획의 완수에서 앞장서서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들을 앞세워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앞세워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 기술혁신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2. 8 직동청년탄광에서

대륙간도로케트 《화성-15》형시형발사의 대성공소식에 걸친 온 나라 인민이 승리의 격정과 최열을 힘차게 일터에서 전개하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탄광 2. 8 직동청년탄광의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적인 힘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당조직과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호속에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이 번져나갔다.

탄광의 기술자들은 우선 새로운 보라를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채굴하는것이냐. 열매는 열매를 적게 채굴하는것이냐. 열매는 열매를 적게 채굴하는것이냐. 열매는 열매를 적게 채굴하는것이냐.

###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덕천탄광 기계공장과 노동계급

최근 덕천탄광기계공장의 노동계급이 국방과학사들의 특발적인 정신력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진군대선비제 작단에서 맹렬히 투쟁하였다. 이들을 앞세워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앞세워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 화력발전소 건설에 제정적이며 빠른 대대적전투비행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탄전이 끊는다, 석탄산이 높아간다

북창지구 청년탄광 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최첨단 보장을 위한 증산투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탄광기업소아래 탄광들은 물론 탄광기계설비 및 부속품 생산을 맡은 보장단위에 이르러까지 새해의 대륙간도로 케트 《화성-15》형시형발사의 대성공소식에 걸고도 불도가나날 더욱 부글부글 끓어번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업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최고사령관은 그대로 전력생산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탄광기업소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최첨단생산지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군들은 이미 마련된 생산장비와 내부비밀적극 람구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있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의 경험에 토대하여 생산단위별로 나가는 원동생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집단 불꽃을 불어넣는 사업을 방법있게 전개하고 있다.

일군들의 주도세밀한 작전에 따라 매일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주라격대상들이 뚜렷하게 정해졌다. 고속도굴진성과를 확대하

북창지구 청년탄광 합기업소에서

공들은 우리 당의 끝없는 공격정신을 단강약하고 굴진속도를 보름에보다 1. 3배로 높이며 생산인량을 힘차게 얻어나가고 있다.

탄광기업소아래 년간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다.

기업소아래 최첨단보장은 큰 몫을 맡고있는 청년탄광 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가 높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요새를 따라갈사기, 마르페우기운동, 정형교환운동의 불꽃을 쏘아붙이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 있다.

탄광기업소아래 최첨단보장은 큰 몫을 맡고있는 청년탄광 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가 높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요새를 따라갈사기, 마르페우기운동, 정형교환운동의 불꽃을 쏘아붙이면서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 있다.

실적 평가와 증산예비

특장청년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의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국가계획을 완수하는 데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국가계획의 완수에서 앞장서서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들을 앞세워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앞세워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2. 8 직동청년탄광에서

대륙간도로케트 《화성-15》형시형발사의 대성공소식에 걸친 온 나라 인민이 승리의 격정과 최열을 힘차게 일터에서 전개하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탄광 2. 8 직동청년탄광의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적인 힘으로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당조직과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호속에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이 번져나갔다.

탄광의 기술자들은 우선 새로운 보라를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채굴하는것이냐. 열매는 열매를 적게 채굴하는것이냐. 열매는 열매를 적게 채굴하는것이냐. 열매는 열매를 적게 채굴하는것이냐.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덕천탄광 기계공장과 노동계급

최근 덕천탄광기계공장의 노동계급이 국방과학사들의 특발적인 정신력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진군대선비제 작단에서 맹렬히 투쟁하였다. 이들을 앞세워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앞세워 탄광의 생산적의 불꽃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 외세에 운명을 내맡기는 매국반역정책

최근 남조선당국이 분수에 맞지 않는 《군형외교》라는데 한사코 대탈리고 있어 내외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여러 기회에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가지는 《군형외교》를 하였다더니, 미국과 중국사이의 관계가 협력과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하도록 이루어주는 《군형외교》를 하였다더니 하고 변설하였다. 한편 이태인나라라는 사실이, 유류동맹 등과의 관계에서도 《군형외교》를 하였다더니, 《신남방정책》은 《군형외교》의 신호라고도 하였다니 하고 광고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군형외교》에 대해 피대를 들고 지어 그 무슨 《군형외교》를 하였다고 실처내듯은 것이야말로 자기 처지도 몰랐고 모르고 버림 받는 열간망둥이들의 어리석은 추태이다. 그것은 사실상 《군형외교》, 《군형외교》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말다툼까지 하였다가 지어 자기 자수절가 되어 미국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해버리고 모자를 쓰는 외세의 손바닥에 거는 거대한 신세를 부렸던 나라고 부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군형외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희망의 발로로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허황한 망상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태인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무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할것을 약속하고있다. 이로 하여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대국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남도 커지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남조선당국이 정권을 차지하고 미국과 주변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사태와 외세의존의 악습에 몰렸

어있는 남조선집권세력은 어리석게도 《북적자단한 외교안보안정정책》에 대해 《군형외교》라는데 한사코 대탈리고 있어 내외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여러 기회에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가지는 《군형외교》를 하였다더니, 미국과 중국사이의 관계가 협력과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하도록 이루어주는 《군형외교》를 하였다더니 하고 변설하였다. 한편 이태인나라라는 사실이, 유류동맹 등과의 관계에서도 《군형외교》를 하였다더니, 《신남방정책》은 《군형외교》의 신호라고도 하였다니 하고 광고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군형외교》에 대해 피대를 들고 지어 그 무슨 《군형외교》를 하였다고 실처내듯은 것이야말로 자기 처지도 몰랐고 모르고 버림 받는 열간망둥이들의 어리석은 추태이다. 그것은 사실상 《군형외교》, 《군형외교》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말다툼까지 하였다가 지어 자기 자수절가 되어 미국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해버리고 모자를 쓰는 외세의 손바닥에 거는 거대한 신세를 부렸던 나라고 부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군형외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희망의 발로로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허황한 망상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태인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무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할것을 약속하고있다. 이로 하여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대국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남도 커지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남조선당국이 정권을 차지하고 미국과 주변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사태와 외세의존의 악습에 몰렸

# 가련한 친미주구의 단말마적발악

지난 10월말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역도 미국행각을 펼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목되는것은 이자가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 꼭대기에 배탈민 민중이처럼 기고만강하여 초분민심은 아랑곳없이 길에뛰는 허비대를 마구 놀리고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며 민심의 적체정신요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가고있는것이다.

홍준표역도는 최근 피회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개입사건, 정권연속수용관세공사건 등 저들의 목적을 조이는 범죄수사에 대해 《완강부대의 인민제권》이라느니, 《정치보복의 말나부술》이라느니 하고 악랄을 들면서 도적이 때를 드는 격으로 날뛰고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정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역도의 사정을 털어놓겠다고 하고 저들을 《보수의 유일정당》으로 광고하면서 《보수세력》의 명목으로 친박계정산도 박근혜출장으로 바꾸려대며 하고있다. 이와 함께 《보수대통합》의 간판을 내걸고 《비준정당》 탈당가들에 대한 부당농성을 벌여놓는데 이어 《늘푸른한국당》, 《대한애국당》,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을 다 끌어당기려고 시도하고있다. 홍준표역도의 이러한 망동은 적체정신을 요구하는 초분민심에 대한 할수없는 우롱인 동시에 미국을 통해 얻고 망하는 우의보수세력을 부활시키기 위한 가련한 친미주구의 단말마적발악이다.

홍준표역도도 말하듯 이미전부의 당직임을 말 안과 비리성적인 광기로 하여 남조선에서 정신병사, 인간오락용으로 학인된 우물로서 보수세력중에서도 《후 피초배》라고 불리우며 저주와 맹타를 받고있다. 이렇듯 초분민심 인격도 없고 정치도 모르는 무지대우야, 권력야심가인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방지를 쓰기 바쁘게 친미정당에 환장하여 대국노의 악명을 떨치고있다.

이제는 지난 10월말 미국에 진출취투기제배를 청원하겠다고 하면서 대양건너의 상전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누구의 《권위》에 대한 진술취투기제배를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을 남조선의 초분민심에 의해 저들의 친민지용지기가 혼들러는것을 불신한 눈길로 지켜보면서 궁지에 몰린 피회보수세력들을 불러들이

# 파멸적후과를 초래할 위협천만한 불량난소동

《참수부대》 조작을 획책하는 피회초전파들의 천하무적 망동

남조선 《뉴스》에 의하면 피회초전파들이 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중에서 일부 부대를 《참수부대》를 위한 특수수입부대로 개편하는 내용을 12월 1일까지 완료하려 하고있다.

일명 《참수부대》로 알려진 이 부대는 조선반도유사시 상황 요 전투하여 우리의 지휘부와 주요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참수부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한다.

피회초전파장자들이 이 부대에 대해 이진주러 《북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부대》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수수입부대로 개편된 후 이 부대는 특수수송정승기, 특수수송기 등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피회초전파들은 해당 예산을 편성할 상태에 있다.

올해초 박근혜의 파면이 막두 하게 되자 피회초전파들은 2019년에 완료하기로 하였던 특수수입부대편성을 2년 앞당겨 올해말에 끝내기로 획책하고 있다.

이것이 내외의 강력한 비난과 반발에 부딪혔지만 피회초전파들은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수행에 헌신하여 《참수부대》 조 작농성을 계속 강행하여왔다.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 3자련대의 기치높이 반미자주, 평화수호투쟁을 더욱 드세게 전개하자

서울에서 범민련결성 27돐 기념행사 진행

다고 당부하였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70여년간 이어져 온 조선반도의 정쟁구조가 최근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정쟁행동이 엄중하며 남조선 《정부》는 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적대정책을 단합하고있다고 단언하였다.

정치체제,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것이 이 땅의 평화와 주권실현,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는 언젠가 그 길에서 거침없이 투쟁하였던 범민련이 이 엄중한 국면에서 크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에서 보내온 편지사들이 낭독되고 《민주평화의 초콜릿에서 인민행정의 초콜릿》라는 제목의 영선전집들이 상영되었다.

범민련 해외본부의 편지사에서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은 조선반도의 위기가 없는 남조선미국공통이 유지될수 없으며 이 통일이 없으면 조선반도위기도 없겠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미국공통이 불평되어야 남조선에서 미군이 불평되어야 리치를 반증해준다고 하면서 편지서는 단말마적투쟁을 본격적인 반미반정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편지서는 지금 미국도 과거 제국침탈정황중기에 접어들었

반민족적악행은 반드시 중언할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인민대회선문 《자유시보》에 의하면 26일 서울 특별기념관에서 《조국통일범민련총합(범민련)결성 27돐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인종당, 로동당, 민주로총, 진보연대, 민족민주평화위원회 등 10여개 단체인, 범민련총합결성 27돐 기념대회에서 약 1만 2000명의 병력도 투입되고 있다.

이 방대한 무력으로 초전파들은 우리의 후방지역에 있는 중요대상물을 정밀타격하는 훈련 등을 벌여놓을것이라고 각기를 부리고있다.

남조선인민대회선문 《자유시보》에 의하면 26일 서울 특별기념관에서 《조국통일범민련총합(범민련)결성 27돐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인종당, 로동당, 민주로총, 진보연대, 민족민주평화위원회 등 10여개 단체인, 범민련총합결성 27돐 기념대회에서 약 1만 2000명의 병력도 투입되고 있다.

이 방대한 무력으로 초전파들은 우리의 후방지역에 있는 중요대상물을 정밀타격하는 훈련 등을 벌여놓을것이라고 각기를 부리고있다.

# 리명박을 즉각 체포하라

남조선의 청년학생 단체가 성명 발표

남조선인민대회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27일 남조선의 인민중년동 학생위원회가 《리명박을 즉각 체포하라》 그 비리제산을 남김없이 환수하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대국》 조작과 부정선거에서 주역을 맡았던 전 정보민 권장 권세훈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하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오시탈영단적성, 4대강장비를 비롯하여 리명박의 각종 범죄가 드러나고있다고 밝혔다.

BBK주조작사건의 결정적단

서인 《다스》 실소유주문제도 배제할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이미 2008년 특검이 밝힌 《다스》의 비자금문제를 리명박이 덮어버려도록 지시한 사실과 함께 아들 리성일이 최근 이 회사의 핵심납품업체를 인수한 리병도 드러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12일 리명박이 악명정산을 위한 조치를 《감정평가》, 《정리회계》 등으로 매도하며 정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황당한 꾀변을 꾀었다고 성명은 규명하였다.

성명문에는 법원이 《대국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는 리명박의 심복인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과 정세실장 임관민을 석방할것을 촉구하며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의 구속이 악명정산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범민련》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통한 뇌물수수혐의 등 도모하여 오르고있다. 우리는 초분민심으로 헌 《정부》에 악명정산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항구적인 제도개혁

# 유엔개혁을 지배권수립에 악용하려는 행위

얼마전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무역, 금융제재를 시급히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가 절대다수의 지지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 결의를 한사코 반대해나서는 망동을 부리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관은 자는 유엔총회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존속시킬 결의안이라고 하며, 쿠바에 대한 경제제치는 미국법에 기초한것으로서 미국국민이 변경지급수 있다는 특성을 내용으로 결의안을 반대하였다.

세계에는 오직 미국만이 통할수 있으며 미국의 비위에 거슬러는 유엔총회결의는 빈 자수자로 치부한다는 불평의 오만무너를 날렸다.

핵사태도 미국은 저들의 국내법을 유엔안보리총회결의에 놓았으며 유엔안보리총회결의에서 주권위무권을 반대하는 각종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고 내정간섭과 정치간섭적압박, 제재폭동을 벌였다.

유엔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자 미국은 그것을 저들의 미기득권을 약화시키고 위협하고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유엔이 권위정치와 그릇된 일처리방식으로 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반미유엔기구를 근본적으로 개혁할데 대한 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트럼프가 내놓은 선언이라는것은 유엔안보리총회결의에 보다 광범한 유엔기구를 개혁할데 대한 유엔선진국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일방적인 문서이다.

이것은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는척 하면서 기구를 자기의 세계제어대상성에 보다 편리한 도구로 개혁하려는 술책의 발현이다. 트럼프는 유엔총회에서 선언조인식이라는것까지 밀려놓고 선진국들에게 선언에 서명할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의 거만하고 파멸적인 행태에 많은 나라들이 반발해나섰다.

로세아는 유엔개혁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의회를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로세아의무상은 미국이 제기한 유엔개혁에 관한 선언에 대해 유엔행정의 범위에서 상설된 기구들과 관계되지 않으며 유엔기관들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로세아의무상 부장은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우리가 문건을 준

비하였으니 당선들은 거기에 서명하라는것, 그렇게 하는 경우 개혁파의 참가자가 될것이고 서명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게 될것이라는것 등의 장악과 위협이라고 실망히 복고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미국의 유엔개혁선언에 대한 혼란자세를 거두고 선언에 서명할것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오만성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유엔선진국들의 요구와 리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엔개혁문제를 토대로 저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악용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일처리방이다.

유엔개혁의 핵심사항인 유엔안보리총회결의개혁은 집단적 이 국제문제결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유엔무대를 완전히 독점하고 그것을 세계제어할수 있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트럼프제재파들의 포악한 책동에 강성을 높여야 하며 미국의 날카로운 강권과 정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